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

공보담당관 지정장 이선봉  
전화 063-472-4200 / 팩스 063-472-4555

## 보 도 자 료 2017. 8. 24.(금)

자료문의 : 형사2부장실  
전화번호 : 063-472-4428  
주책임자 : 형사2부장 김명운

제 목

###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수사 결과

- 방화사범 구속 기소 및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입체적 피해자 지원 -

-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는, '18. 6. 7. 군산시 장미동 소재 '7080클럽'에서 휘발유를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, 29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OO을 금일(8. 24.) 구속 기소하였음
- 수사결과, 피의자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COO과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, 범행을 계획하고, 실행한 것으로 확인됨
-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,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,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였음
- 나아가, 검찰은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네트워크 유관기관 긴급간담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,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선(先) 지급보증해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, 장례비 및 유족구조금 등으로 541,929,636원 상당을 지급하였고, 심리치료 및 생계비 지원도 실시하였음
-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임

## I 피의자 및 피해자

- 피의자 : AOO(남, 55세, 선원)
- 피해자 : BOO(남, 47세) 외 4명 사망, COO(여, 55세, 주점업주) 외 28명 상해

## II 피의사실 요지

- '18. 6. 17. 21:53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'7080클럽'에서 미리 절취한 휘발유를 위 클럽 안쪽 입구에 뿌리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인 다음 출입문을 알루미늄봉으로 봉쇄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, 피해자 AOO 등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케 하고, 업주 BOO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[현주 건조물방화치사상좌 등]

## III 사건 경과

- '18. 6. 17. ~ 6. 18. 군산경찰서, 119 신고접수 후 즉시 출동, 긴급체포, 현장감식
- '18. 6. 19. 군산경찰서, 피의자 긴급체포 석방 후 체포영장 전환
  - ※ 피의자도 본건 범행 중 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, 석방 후 '18. 6. 19.~ 7. 31.까지 병원에 입원치료
- '18. 6. 22. ~ 8. 10. 유족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 지원
  - ※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, 검찰이 선 지급보증하여 신속한 치료를 실시하고, 유족들에 대해 심라상담치료, 유족구조금 지급, 학자금, 생계비 지원
- '18. 8. 1. ~ 8. 3. 군산경찰서, 체포영장 집행 및 구속
  - ※ 전담검사와 경찰이 함께 주치의를 면담하고, 의료자문위원 의견 청취
- '18. 8. 6. 군산경찰서에서 군산지청으로 송치
- '18. 8. 6. ~ 8. 22. 피의자·업주 등 조사, 통합 심리·생리검사 실시 및 검찰시민위원회 개최
- '18. 8. 23. 피의자 구속기소

## IV 피해자 지원

-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네트워크 긴급 간담회(참여기관 : 군산지청, 군산경찰서, 익산경찰서, 전주스마일센터, 원광대학병원, 군산소방서, 군산시청 등 총 11개 기관)을 개최한 다음,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였음
- **검찰**은, 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면서, 유족구조금과 중상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, **경찰**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지원 가능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, **범죄피해자지원센터**는 피해자 지원 접수 및 필요한 지원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, 경상해 피해자 및 1차 소액 응급치료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, **전주스마일센터**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고, **군산시청**은 피해자들의 생계지원 및 행정 절차 지원을 담당하였으며, **대한법률구조공단(군산)**은 화재보험금 수령 관련 분쟁 조정 및 소송구조 등을 지원하고, **군산교육지원청**은 피해자 자녀들 학업 현황 파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**군산소방서**는 사고 현장 수습과 추가 피해자 확인을 통한 군산지청 피해자 지원 담당관과의 연락을 취하고, 각 **병원**은 피해자 치료 및 그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 분담하여 유기적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
- 구체적으로 검찰은, 본건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에게는 **유족구조금** 제도를 활용하여 사망 피해자 5명의 유족들에게 **유족구조금**으로 총 415,555,096원과 **장례비** 총 1,500만원 지급하였고,
  - ※ **유족구조금**이란,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우선 순위 상속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, **장애·중상해 구조금**이란, 범죄로 인한 중요장기의 손상, 신체의 절단, 중증의 정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구조금으로,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먼저 신속히 지원을 하고,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제도임
-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, 선지원하는 긴급 경제적 지원을 통해 '18. 6. 17. ~ 6. 21.까지 '한강성심병원'에서 치료중인 중상해 피해자 13명에 대해 **치료비**로 20,913,76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'18. 8. 10.까지 피해자 29명에 대해 합계 총 107,774,540원을 지원하였으며(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)

※ 화상치료를 위해 '한강성심병원' '베스티안우송병원', '원광대병원', '전북대병원', '조선대병원'에서 각 분산 치료 중

- 지속적인 학업유지 등을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망 피해자의 자녀 2명과 상해 피해자 자녀 2명에 게 **장학금**으로 총 660만원을 지원하였고,
- 유족 1명과 상해 피해자 4명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'불안증세', '대인기피증' 등을 보여 '전주스마일센터'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집중 심리·상담치료토록 조치하였음
-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, 조성된 자체 기금을 이용하여, '18. 8. 20. 현재까지 경상자 등에 대한 치료비, 교통비, 간병비 등 각종 부대비용 포함 62,718,840원 상당 지원하였음
- 중상해피해자들에 대해서는, 치료 후 그 정도에 따라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할 예정임

## V 참고사항

-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, 검찰은 전담검사를 지정하고, 관련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였음
- 나아가, 시민단체, 주부, 종교인, 학생 등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일반시민들의 법감정을 적극 반영하였음
- 또한, 검찰, 경찰,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네트워크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

## VI 향후계획

-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엄정 대처 예정
-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, 심리치료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 예정. 끝.